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45)씨가 "책 때문에 작업실이 비좁아 조만간 옮기게 될 것 같다"며 "나 보다는 책을 촬영해 달라"고 책장 사이로 얼굴을 내밀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백남준의 저서는 '나의 성경'

❼ 미디어아티스트 이이남

차원 다른 화법보여준 이외수 '벽오금학도' 감명

미술 전문서적 1만권 20년후엔 후배들에 기증

광주시 남구 백운동에 있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이남(45)씨의 작업실에 들르는 사람들은 이씨의 얼굴을 한번 더 쳐다보게 된다. 작업실 벽면에 붙어있는 문구 "고 3처럼 공부하자"도 이채롭지만, 작업실 벽면을 둘러싼 책꽂이와 그 안에 꽂혀 있는 장서가 시선을 압도하기 때문이다.

책들은 이씨가 해외 전시 때문에 출장갈 때마다 현지에서 사서 모은 미술관련 전문 서적이다. 1만여권을 헤아린다. 7할이 미술관련 해외 원서고 나머지는 인문학 서적이다. 마음에 드는 책을 사다보니 책꽂이가 부족해 책상위에 뉘여져 있는 것들이 더 많다. 작업실 이전을 고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본의 아니게 '미술서적 콜렉터'가 된 이유는 후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한 20년쯤 지나 책이 어느 정도 모이면 미술 공부하는 후배들을 위해 기증할 생각입니다. 책은 창작의 원천입니다. 대부분 원서들로 미술관련 전문서적을 파는 서점에도 없는 희귀본도 있을 겁니다. 책욕심도 있지만, 기증한다는 목표 때문에 책을 더 열심히 구입합니다."

이씨가 책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그의 작업과 깊은 연관이 있어서다. 대학 때 읽은 '새로움의 충격-모더니즘의 도전과 환상'(로버트 휴즈·미진사)은 그를 미디어 아티스트로 이끌었다. 이 책은 영국방송협회(BBC)의 TV 기획물 방송 원고를 보완하여 펴낸 것으로, 미술 분야는 물론 문학, 영화, 연극 등 다른 장르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미술을 문화사적 지평에서 해부하고 있다.

"미술에는 조각 밖에 없고, 로뎅 같은 조각가를 꿈꾸던 때, '새로움의 충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현대 미술이 이렇게 재미있고,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데 매료됐죠. 환상적이라는 생각 밖에 안들었습니다. 인생을 바꿔놓은 책입니다. 지금도 처음 읽었던 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뜁니다."

이씨의 작업은 교과서나 미술관 속의 명화들을 끄집어내 디지털 기술과 스토리텔링으로 덧씌워 생명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그가 영감을 받은 작가는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1932년~2006년) 선생이다. '백남준 : 말馬에서 크리스토'라는 책은 이씨에게 '성경'이나 다름없다.

"백남준 선생이 작품활동을 하면서 쓴 다양한 글들을 묶은 책입니다. 악보와 편지, 에세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의미, 제작과정 등에 대한 설명도 담겨 있죠. 예술가들이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보면 백 선생님은 가장 창조적인 작가일 겁니다. 비디오 아트라는 미술사에 없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잖아요."

이씨는 "책에 관한한 잡식성이다"고 자신을 표현한다. 주로 미술서적 위주로 구입하지만 소설도 즐겨 읽는다고 한다. 그가 꼽는 최고의 소설은 이외수씨의 '벽오금학도'다. 선계(仙界)를 경험한 한 소년이 수십 년 방황 끝에 마침내 선계로 통하는 그림 속 문으로 홀연히 사라졌다는 식의 설화를 모티프로 쓴 장편이다.

"벽오금학도는 저에게 무한한 영감을 줬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이씨의 소설은 문체도 독특하지만, 여느 작가들이 시선을 두지 않았던 차원이 다른, 선계(仙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남들과 차원이 다른 세계를 보여주는 것, 이게 예술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그는 "요즘 너무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알 듯 모를 듯한 얘기를 했다. 요지는 이렇다. "책을 읽다보면 스스로 우쭐해지고 교만해지는 느낌이 든다"는 것이다.

"그냥 아무 생각 없는 독서를 하고 싶습니다. 목표 없이 흥미에 이끌려 책을 읽다보면 책의 내용이 마음에 담기는 그런 기분이 드는 독서, 그렇게 책을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내공을 쌓으려는 독서가 되지 않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미술이 좋아서 작품활동을 하다보면 좋은 작품이 만들어지는 것과도 같죠. 훌륭한 작가가 되려고 작품 활동을 하면 반드시 지치고 물립니다. 좋은 작품도 안나오죠."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요코하마, 상하이, 그리고 광주

프랑스 북부에 위치한 릴(Lille) 시는 인구 24만 명의 작은 도시다. 산업혁명이 절정으로 치닫던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릴의 석탄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멈추지 않았다. 하지만 릴의 '봄날'은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많은 공장이 동유럽 등으로 옮겨가면서 '잘 나가던' 공업도시는 급속히 쇠락해 갔다. 1990년대에는 인구 17만 명 중 3만 여 명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대도시로 떠났다. 어찌나 썰렁한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동네'라는 별명이 붙었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지금, 릴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문화도시'로 탈바꿈했다. 비결은 유럽문화수도(European Capital of Culture) 덕분이다. 지난 1985년 그리스의 멜리나 메르쿠리 문화부 장관의 제안으로 세상에 나온 유럽문화수도는 EU가 매년 1~2개 도시를 순번제로 지정해 유럽의 문화 중심지로 키우는 프로젝트. 리버풀, 파리, 베를린 등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문화도시가 이 사업의 수혜자들이다.

지난 2004년 유럽 문화수도로 선정된 릴은 '릴 2004'프로젝트를 펼쳐 회색도시를 되살려 냈다. '릴 2004'의 조직위원회는 낡은 설치물들을 예술작품으로 리모델링해 도시를 거대한 미술관으로 바꾸고 빈 공장이나 상가는 예술가들의 아틀리에로 재활용했다.

무엇보다 '릴 2004'의 성공 주역은 화려한 볼거리였다. '릴 2004' 조직위원회는 비슷한 레퍼토리를 시기별로 '우려먹는' 대신 1년 동안 새로운 이벤트가 끊이지 않도록 공을 들였다. 그 결과 1년 간 수십 만 명의 관광객이 몰려들었고 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면서 대도시로 떠났던 1만3000여 명이 되돌아왔다.

최근 한·중·일 3개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아시아 문화도시'는 바로 '아시아판 유럽문화수도'다. 오는 2014년 1월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1년 동안 해당도시에서 한·중·일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예산(100억 원) 등을 지원한다.

이에 따르면 2014년에는 한·중·일에서 각 1개도시, 2015년엔 중국 1개 도시, 2016년에는 한국 1개 도시, 2017년에는 일본 1개도시에서 3국간의 문화가 교류될 예정이다.

지난달 한국개최도시로는 부산 등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광주가, 일본과 중국에선 요코하마와 상하이가 각각 선정됐다. 특히 광주로서는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에 이은 또 하나의 쾌거라 할 수 있다. 요코하마, 상하이 등 세계적인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광주의 역량과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2일 공식출범한 (재)동아시아문화도시의 역할은 자못 막중하다. 재단의 기획과 운영에 프로그램의 성패가 달려 있는 만큼 치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프랑스 변방에서 유럽의 허브로 변신한 '릴의 기적'을 광주에서 재현해보자. 〈편집부국장겸 문화선임기자〉

'소리'의 진수 소리꾼 박춘맹 공연 내일 빛고을 전수관

흥겨운 판소리 대목을 감상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목요열린국악한마당'을 주최하는 광주시 서구 빛고을 전수관은 소리꾼 박춘맹(전남도립국악단 지도위원)씨를 초청, '얼씨구 소리판'을 주제로 공연을 갖는다. 4일 오후 7시 전수관 공연장.

박씨는 이번 공연에서 판소리를 바탕으로 국악가요, 단막창극, 남도잡가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단가 '사철가'를 시작으로 판소리 '심청가' 중 '심봉사 눈뜨는 대목', 국악가요 '쑥대머리', 판소리 '흥보가' 중 '화초장' 대목을 단막 창극으로 만나보고 남도 잡가의 진수인 '육자백'를 들려준다.

성우향·오정숙씨를 사사한 박씨는 정권진 명창에게 사사 했으며, 제14회 임방울 국악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으며 국립창극단, 광주시립국극단 단원을 역임했다. 티켓 가격 무료. 문의 062-350-455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낭만 유랑단, 오늘 예술의거리 이색공연

매주 수요일 점심시간 예술의 거리와 대인시장에 신선한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 '낭만 유랑단'이 중국 전통 '변검 퍼포먼스'를 펼친다.

노들마루사업단은 3일 낮 12시 예술의 거리 중앙초교 사거리, 오후 1시 대인시장 다다익선 앞에서 변검 매직쇼와 댄스팀 '뉴런컴퍼니'공연을 펼친다.

변검은 순식간에 얼굴색을 바꾸는 환술로, 중국에서 국보로 지정된 대표적인 전통극. 국내 변검사 김영록씨가 신기한 변검 매직쇼를 선보인다. /이보람기자 boram@